

## 갑골문에 보이는 목적어의 어순 변화 양상 연구

류동춘\*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범언어적인 목적어의 어순 변화 경향
  3. 갑골문 명사 목적어의 어순
    - 1) 選貞卜辭
    - 2) 對貞卜辭
  4. 갑골문 대명사 목적어의 어순
    - 1) 부정문
    - 2) 긍정문
  5. 갑골문 목적어의 품사와 문형에 따른 어순 양상
  6.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현재 중국어 속에서 동사와 목적어의 기본 어순은 VO 어순이지만 선진시기의 중국어에는 OV 어순이 적지 않게 보인다. 선진시기 이후에 중국어의 OV에서 VO로 통시적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적지 않지만, 갑골문에서는 OV 혹은 VO 어순이 어떤 양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있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갑골문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이른 시기 중국어의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을 문형과 품사에 따라 나누어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갑골문에는 이후 시기에 비해 OV 어순이 더 많이 보이며, 이는 중국어의 어순이 OV에서 VO로 변화하는 추세로 볼 때, 언어변화의 원칙에 부합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처음 찾은 긍정문 속 대명사 목적어의 OV 어순 증거는 기존 견해에 따르면 설명할 수 없었던 갑골문에 없던 OV 어순이 왜

\* 서강대학교 인문대학 중국문화학과 교수

후대에 출현하는지를 해결해 준다. 즉, 갑골문 긍정문에서 공존하던 VO 어순과 OV 어순이 후대에 점차 VO 어순으로 수렴되었으며 이는 어순 변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증명한다. 갑골문에서 명사 목적어가 대명사 목적어보다 일찍 VO 어순으로 변화한 것 또한 범언어적 경향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 술어 전체에 초점이 있는 대정복사보다 목적어에만 초점이 있는 선정복사에 OV 어순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데, 이것은 어순과 초점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갑골문에 보이는 이런 양상은 중국어 목적어 어순의 통시적 변화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으며, 언어 보편적 원칙에도 부합한다.

**키워드:** 갑골문, 대정복사, 선정복사, OV, VO, 어순

## 1. 들어가는 말

선진시기 문헌에는 아래 예문처럼 부정문의 목적어가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이거나 의문문에서 의문대명사가 목적어이면 OV 어순이 보인다.

- (1) 不患人之不知,患不知人也. 『論語·學而』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 (2) 然而不王者,未之有也. 『孟子·梁惠王上』  
그렇게 하고도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 (3) 吾誰欺? 欺天乎! 『論語·子罕』  
내가 누구를 속이겠는가? 하늘을 속이겠는가!

(1), (2)와 같은 OV 어순은 西漢에 이르러 VO 어순으로 바뀌고, (3)과 같은 OV 어순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VO 어순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어의 VO 어순이 완성된다. 그렇다면 선진시기 이전의 갑골문 어순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갑골문에는 다음과 같은 어순의 복사가 보인다.<sup>1)</sup>

1) 갑골문에는 의문사가 보이지 않으므로, 부정문의 예만 제시하였다.

- (4) 庚戌,子卜貞,丁不芻我 『21727』<sup>2)</sup>  
 庚戌일에 자가 점쳐 묻는다. 丁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요?<sup>3)</sup>
- (5) 貞,勿曰之 『11461』  
 묻는다. 그것을 말하지 말까요?

(4), (5)는 모두 부정문인데 대명사 목적어가 VO 어순이다. 이러한 예는 중국어의 어순 변화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중국어가 선진시기 이후에 통시적으로 OV에서 VO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선진시기 이전의 갑골문이 어떤 조건에서 OV 혹은 VO 어순을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있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갑골문에 보이는 목적어의 어순을 살펴봄으로써 현재까지 자료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중국어의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을 확인하고, 이후의 어순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진시기 중국어에서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은 목적어의 품사가 명사인지 대명사인지에 따라, 또 문형이 의문문인지 부정문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어순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갑골문도 문형과 목적어의 품사에 따라 어떤 어순을 보이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명사 목적어의 경우 鍾紅丹(2017)이 11종 자료집에서 추출한 12,381개의 복사 가운데 선정복사와 대정복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sup>4)</sup> 대명사 목적어는 『殷墟甲骨刻辭類纂』의 ‘我’와 ‘余’조항과 齊航福(2015)가 9종의 자료집을 대상으로 추출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sup>5)</sup>

2) 다른 서명 표기가 없는 『 』 속의 숫자는 모두 『甲骨文合集』수록 번호이다.  
 3) 芻는 조상신이 왕에게 ‘재앙을 내리다’는 뜻으로 ‘貞父乙芻于王 『222』’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  
 4) 鍾紅丹(2017)이 추출한 자료집은 『甲骨文合集』, 『甲骨文合集補編』, 『蘇德美日所見甲骨集』, 『小屯南地甲骨』, 『懷特氏等收藏甲骨文集』, 『英國所藏甲骨集』, 『殷墟花園莊東地甲骨』, 『殷墟小屯村中村南甲骨』, 『天理大學附屬參考館甲骨文字』,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藏甲骨文字』 11종이다.  
 5) 齊航福(2015)가 대상으로 한 자료집은 『甲骨文合集』, 『甲骨文合集補編』, 『英國所藏甲骨集』,

## 2. 범언어적인 목적어의 어순 변화 경향

갑골문에 보이는 목적어의 어순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범언어적으로 목적어의 어순이 변화하는 경우에 어떤 경향이 있는지 살펴보자. Greenberg는 언어 양상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서 45개의 함축적 보편성(Implicational Universals)을 제시했는데, 그중 보편성 25에 의하면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면 명사 목적어도 동사 뒤에 온다.<sup>6)</sup> 이러한 보편성이 의미하는 것은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고 명사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는 언어나,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고 명사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는 언어, 혹은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고 명사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는 언어는 있지만,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고 명사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함축적 보편성에 따르면, 선진시기 문헌에서 보이듯이 명사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고,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거나 동사 앞에 오는 유형은 가능한 언어유형임을 알 수 있다. Kiparsky(1996:1-8)에 의하면 SOV에서 SVO로 변화하는 언어는 있지만, SVO에서 SOV로 변화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SOV에서 SVO로 어순이 변화하는 과정은 점진적이어서 두 개의 어순이 병존하는 시기를 거치게 된다. SVO와 SOV의 두 가지 어순이 병존할 경우에 명사 목적어는 SVO, 대명사 목적어는 SOV 어순인 경우가 다양한 언어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중세 영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SVO 언어는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SOV 어순이다. 이처럼 SOV 언어에서 SVO 언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명사 목적어가 먼저 SVO로 변화하고, 그 후에 대명사 목적어가 SVO로 변화하는 현상은 보편적이다.<sup>7)</sup>

『小屯南地甲骨』, 『殷墟花園莊東地甲骨』, 『中國國家博物館館藏文物研究叢書·甲骨卷』, 『北京大學珍藏甲骨文字』, 『殷墟甲骨輯佚』, 『殷墟小屯村中村南甲骨』 9종이다.

6) Greenberg(1963:56) 참고.

7) 백은희(2019:151-152) 참고.

### 3. 갑골문 명사 목적어의 어순

갑골문은 점복을 행한 기록으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일정한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성요소는 卜辭의 주요 내용이 되는 前辭(敍辭), 命辭, 占辭, 驗辭와 복사와 관련된 用辭, 孚辭, 兆序 등이다. 이 모든 구성요소들이 다 출현하는 卜辭는 많지 않고, 대부분 이 가운데 일부만 나타낸다. 주요 구성요소 가운데 卜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命辭는 점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본고의 분석 대상이다. 갑골문 命辭가 평서문인가 의문문인가에 대하여 아직 학계의 일치된 의견은 없고,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하지 않고, 管燮初(1953)와 陳夢家(1956) 이래로 줄곧 주장되어온 의문문설에 따라 命辭를 분석하였다. 의문문에서는 답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초점이 될 것이다.<sup>8)</sup> 복사는 궁금한 내용을 신에게 질의하는 기록이므로, 궁금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복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복사에서 수량이 가장 많은 제사동사문을 예로 보면, 동사는 원인, 제사대상, 제물 3가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 동사의 목적어는 O로 표기하고, 제사동사의 세가지 목적어는 구분하여 제사의 원인을 나타내는 원인 목적어(O<sub>因</sub>), 제사의 대상을 나타내는 대상 목적어(O<sub>對</sub>), 그리고 제사에서 바치는 희생물을 나타내는 제물 목적어(O<sub>物</sub>)로 표기한다. 이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원인은 대개 정해져 있고, 누구에게 제사를 지낼지, 또 어떤 제물을 바칠지, 바친다면 얼마나 바칠지가 주로 정해야 할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점복이 가장 많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지내는 제사의 경우에는 제사대상도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8) 劉春娟(2010:33)은 초점은 화용적 개념인데 의미의 중심이며 표현의 중점으로 화자(갑골문에서는 점을 치는 사람)가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전달하는 중요 정보이며, 화자가 청자(갑골문에서는 점복의 대상인 신)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즉 복사에서는 점복을 통해서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초점이 된다.

제물에 관한 것이다.<sup>9)</sup> 제물의 경우에는 종류와 수량이 주로 초점이 된다. 그런데 갑골문은 대부분 단편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묻는지, 즉 질문의 초점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문장의 비교를 통하여 질문의 초점을 파악할 수 있는 복사 형식이 있는데, 바로 선정(選貞)과 대정(對貞)이라는 점복 방식이다. 선정은 순차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바꿔가며 질문하는 것이므로 바뀐 부분이 초점이 된다. 대정은 같은 내용을 긍정문과 부정문 혹은 부정문과 긍정문으로 문형을 바꾸어 질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과 부정하는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초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명확하게 초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형식의 복사를 살펴보겠다.<sup>10)</sup>

### 1) 選貞卜辭

선정복사는 거의 대부분 제사동사문이지만 일반동사도 간혹 보인다. 아래에서 VO 어순부터 살펴본다.

#### ① VO 어순

선정복사에서 VO 어순의 형태로 VO<sub>神</sub>O<sub>牲</sub>, VO<sub>牲</sub>O<sub>神</sub>, O<sub>神</sub>VO<sub>牲</sub>, VO<sub>牲</sub> 어순이 보인다.<sup>11)</sup> 우선 목적어가 두 개인 복사부터 보자.

9) 제사대상 외에 제사 시기도 주요한 질의 내용이지만, 동사의 목적어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같은 이유로 제사 종류도 동사이므로 제외하였다.

10) 본고는 초점표지가 부가되지 않은 무표적인 목적어의 어순을 고찰하므로 초점표지 ‘惠’와 ‘隹’가 부가된 목적어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1) 이론적으로 VO<sub>神</sub>과 O<sub>牲</sub>VO<sub>神</sub> 어순도 보여야 한다. 하지만 VO<sub>神</sub>은 조사 범위 내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O<sub>神</sub>V만 보였다. 그리고 O<sub>牲</sub>VO<sub>神</sub>는 찾을 수 있었지만, 초점이 O<sub>牲</sub>에 있어서 OV 어순으로 분류하였다. 아래에서도 O가 두 개 이상 출현할 경우 초점이 되는 목적어를 기준으로 VO인지 OV인지를 구분하였다.

- (6) 辛未卜,又大乙七牢  
 辛未卜,又大乙十牢 『32403』  
 辛未일에 점친다, 大乙에게 七牢로 又제사를 지낼까요?  
 辛未일에 점친다, 大乙에게 十牢로 又제사를 지낼까요?
- (7) 甲子卜,翌升歲入乙二牢  
 甲子卜三牢于入乙 『22065』  
 甲子일에 점친다. 入乙에게 翌제사, 升제사와 歲제사를 지내는데 二牢로 할까요?  
 甲子일에 점친다. 三牢를 入乙에게 바칠까요?
- (8) 又妣丁豕  
 妣己豕 『22215』  
 妣丁에게 돼지로 又제사를 지낼까요?  
 妣己에게 돼지로 지낼까요?

(6)은 제사동사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형식으로, 제사동사 ‘又’ 뒤에 제사대상을 나타내는 ‘大乙’과 제물을 나타내는 ‘七牢’가 순서대로 나왔다. 둘째 구절에서는 희생물의 수량만 바뀌서 질문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초점은 희생물의 수량이며 전체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은 VO<sub>神</sub>O<sub>牲</sub>이다. (7)은 앞 구절에서는 제사동사, 제사대상, 제물이 순서대로 출현하는데, 둘째 구절에서는 제사동사는 생략되고 제물과 전치사를 추가한 제사대상만 보어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구절은 복사의 초점은 제물의 수량이다. (8)의 앞 구절은 제사동사 ‘又’와 제사대상 ‘妣丁’, 그리고 제물 ‘豕’가 출현하여 VO<sub>神</sub>O<sub>牲</sub>의 어순이다. 뒷 구절에서는 제사동사가 생략되고 제사대상을 ‘妣己’로 바꾸어 제사대상이 초점이 되었다. 제사대상이 초점이 되는 경우에는 전치사구의 형태로 동사 앞에 오는 예가 많이 보인다.<sup>12)</sup>

다음은 목적어가 두 개이지만, 목적어가 분리된 예들이다.

- (9) 甲戌卜又鬯甲祖<sup>13)</sup>一  
 甲戌卜又鬯祖甲二 『花東157』<sup>14)</sup>

12)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于大乙告三牛/于示壬告 『屯南783』’

13) 이 구절의 제사대상 ‘甲祖’는 둘째 구절에서는 ‘祖甲’으로 단어의 성분순서가 바뀐다.

甲戌일에 점친다. 祖甲에게 又제사를 지내는데 울창주 하나를 올릴까요?

甲戌일에 점친다. 祖甲에게 又제사를 지내는데 울창주 둘을 올릴까요?

(10) 庚申卜,王貞,妣庚歲其牡.在七月

貞,牝.在七月 『23364』

庚申일에 점쳐, 王이 묻는다. 妣庚에게 歲제사를 지내는데 牡을 제물로 할까요? 七月이다.’

점친다. 牝으로 할까요? 七月이다.

(11) 河燎二牛

河燎三牛

河燎惠羊二

河燎惠羊三

河燎五牛 『34246』

河에게 燎제사를 지내는데 소 두 마리로 할까요?

河에게 燎제사를 지내는데 소 세 마리로 할까요?

河에게 燎제사를 지내는데 양 두 마리로 할까요?

河에게 燎제사를 지내는데 양 세 마리로 할까요?

河에게 燎제사를 지내는데 소 다섯 마리로 할까요?

(9)는 특이하게 제사동사 ‘又’뒤에 목적어가 제물, 제사대상의 순서로 나오며 제물의 수량은 제사대상의 뒤로 나뉘어 위치한다. 즉 VO<sub>牲</sub>O<sub>神</sub>의 어순인데 O<sub>牲</sub>의 수량표시부분이 O<sub>神</sub>의 뒤로 간 것이다. 초점은 맨 뒤에 있는 수량이다. (10)은 제사대상이 동사의 앞에 위치하고 제물은 동사의 뒤에 위치하여 O<sub>神</sub>VO<sub>牲</sub>의 어순이다. 복사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제물의 종류로 앞 구절의 ‘牡’가 뒷 구절에서는 ‘牝’으로 바뀌었다. (11)도 모두 제사대상, 제사동사, 제물의 순서로 배열되어 O<sub>神</sub>VO<sub>牲</sub> 어순이다. 초점은 뒤에 나오는 희생물의 수량과 종류인데, 첫째, 둘째 구절과 다섯째 구절은 소의 수량이 초점이고 셋째와 넷째 구절은 양의 수량이 초점이다. 셋째와 넷째 구절에서는 초점표지 ‘惠’를 초점이 되는 목적어 앞에 부가하였다.

14) 花東은 『殷墟花園莊東地甲骨』을 가리킨다.

다음은 목적어가 하나 나오는 예이다.

(12) 燎一牛

燎二牛

[燎]<sup>15)</sup>三牛 『811正』

한 마리 소로 燎제사를 지낼까요?

두 마리 소로 燎제사를 지낼까요?

세 마리 소로 燎제사를 지낼까요?

(13) 癸巳卜,又歲于祖戊牢三

癸巳卜,牢五. 不用 『22074』

癸巳일에 점친다. 祖戊에게 又제사와 歲제사를 지내는데 牢 셋으로

할까요?

癸巳일에 점친다. 牢 다섯으로 할까요? 채택되지 않았다.

(12)는 제사대상은 나오지 않고, 제사동사 ‘燎’와 제물만 나오며, 둘째와 셋째 구절에서 제물의 수량만 바뀌어 질문한다. VO<sub>제</sub>의 어순인데 더 간략화하여 ‘祝一牛/二牛/三牛 『27445』’같이 뒷 구절에서는 제사동사까지 생략하기도 한다. (13)은 제사대상은 전치사구로 나오고 목적어가 하나이며, 둘째 구절에서는 동사와 제사대상도 생략되고 목적어만 출현한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선정복사는 복사의 성격상 질문의 초점이 대개 희생물의 종류와 수량, 제사대상이므로<sup>16)</sup>, VO 어순을 가지는 복사들에서는 초점이 모두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에 있는 것이다.

## ② OV 어순

다음으로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는 OV 어순의 선정복사를 살펴보자.<sup>17)</sup>

15) 문례나 글자 조각에 따라 보충한 글자는 [ ]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16) 제사동사가 아닌 경우, 주어에 초점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丙午,貞,多臣亡疾

丙午,貞,多婦亡疾 『22258』

OV 어순 형태로  $O_{\text{牲}}VO_{\text{因}}O_{\text{神}}$ ,  $O_{\text{神}}VO_{\text{牲}}$ ,  $O_{\text{牲}}V$ ,  $O_{\text{神}}V$ ,  $OV$ ,  $O_{\text{神}}V_1 V_2$  어순이 보인다.

우선 목적어가 세 개 나오는 예를 보자.

(14) 甲申卜, 禦婦鼠妣己二牝牡? 十二月

一牛禦婦鼠妣己?

一牛一羊禦婦鼠妣己? 『19987』

甲申일에 점친다. 婦鼠를 위하여 妣己에게 禦제사를 지내는데, 두 마리 암소와 수소를 희생으로 바칠까요? 十二月이다.

소 한마리로 婦鼠를 위하여 妣己에게 禦제사를 지낼까요?

소 한마리와 양 한 마리로 婦鼠를 위하여 妣己에게 禦제사를 지낼까요?

(14)는 첫째 구절에서는 일반적 복사의 배열순서에 따라 제사동사 ‘禦’의 뒤에 원인목적어 ‘婦鼠’가 나와서, 이 ‘禦’제사가 ‘婦鼠’의 액운을 없애주기 위해 거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제사대상인 ‘妣己’가 나오고, 이어서 제사에 바치는 희생물의 종류와 수량이 나오고,  $VO_{\text{因}}O_{\text{神}}O_{\text{牲}}$  어순이다.<sup>18)</sup> 둘째 구절과 셋째 구절에서는 일반적 어순과 다르게 질문의 초점인 ‘一牛’와 ‘一牛一羊’이 동사의 앞에 출현하여  $O_{\text{牲}}VO_{\text{因}}O_{\text{神}}$  어순을 보인다. 세 구절의 비교를 통해 여기에서 초점은 희생물의 종류와 수량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목적어가 하나만 나오는 예이다.<sup>19)</sup>

17) 唐鈺明(2002:212-213)은 陳夢家(1956)가 목적어 전치문의 예로 든 아래와 같은 복사를 모두 수사 주어문으로 보았다.

(i) 三百羌用于丁 『續2.16.3』

(ii) 河燎三牛 『粹39』

唐鈺明은 이 복사들이 다음의 심층구조가 같은 ‘用三百羌于丁 『293』’, ‘燎于河三牛 『掇1.462』’ 복사들로 변환이 가능하데, 이것들은 생략된 주어를 넣으면 ‘[王]用三百羌于丁’, ‘[王]燎于河三牛’으로 가능한 형식이 되지만, 앞의 것은 주어를 넣은 형식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三百羌’과 ‘河’는 전치된 목적어가 아니라 수사주어로 파악한다고 했다.

18) 구절 끝의 ‘十二月’은 점복을 시행한 시기를 가리킨다.

19) 조사 범위 내에서는 목적어가 2개 나오는 OV 어순은 보이지 않았다.

- (15) 妣己禦  
 妣甲禦  
 妣庚禦 『32739』  
 妣己에게 禦제사를 지낼까요?  
 妣甲에게 禦제사를 지낼까요?  
 妣庚에게 禦제사를 지낼까요?
- (16) 四鹿獲  
 五鹿獲 『28324』  
 네 마리 사슴을 잡을까요?  
 다섯 마리 사슴을 잡을까요?

(15)는 세 구절이 모두 제사동사 ‘御’의 앞에 각각 ‘妣己’, ‘妣甲’, ‘妣庚’이 제사대상으로 놓여 초점이 되는 O<sub>神</sub>V 어순이다. (16)은 앞의 예들이 모두 제사와 관련된 것과 달리 사냥과 관련된 내용이다. 간단하게 동물과 숫자만 나온 OV 어순이지만, ‘獲’이라는 동사를 통하여 사냥에서 사슴을 몇 마리 잡을지를 초점으로하는 점복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제사동사가 두 개 나오는 예이다.

- (17) 先庚歲酒  
 先祖乙歲酒 『32532』  
 먼저 庚에게 歲제사와 酒제사를 올릴까요?  
 먼저 祖乙에게 歲제사와 酒제사를 올릴까요?

(17)은 부사어 ‘先’과 제사동사 ‘歲’와 ‘酒’ 사이에 초점인 제사대상 ‘庚’과 ‘祖乙’이 위치하여 O<sub>神</sub>V<sub>1</sub> V<sub>2</sub> 어순이다.

이상에서 선정복사의 목적어와 동사의 어순을 살펴보았다. 선정복사는 점복의 성격상 대부분이 제사동사문이고, 일부 일반동사도 보인다. 선정하는 초점은 주로 희생물의 수량, 종류이며, 제사대상도 적지 않게 보인다. 일반동사는 사냥이나 공납 관련 동사들이 보인다. 아래의 표는 鍾紅丹(2017)이 제시한

선정복사 가운데 명사 목적어가 초점인 복사의 동사와 목적어 어순에 대한 통계이다.<sup>20)</sup> 아래 표의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선정복사에서 VO 어순은 85차례, OV 어순은 23차례 출현하여 두 어순의 비율이 2.7:1이다.

『선정복사의 명사 목적어 어순』

VO	OV
85	23

## 2) 對貞卜辭

대정복사는 제사동사가 주로 출현하는 선정복사와 다르게 제사동사뿐 만 아니라, 다양한 동사가 나오고 이에 따라 목적어인 명사도 선정복사에 비하여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아래에서 대정복사를 동사와 목적어의 순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자.

### ① VO 어순

대정복사에는 선정복사와는 달리 거의 모든 복사에서 목적어가 하나만 나온다. 아래에서는 먼저 제사와 관련된 내용의 복사를 살펴보도록 한다.<sup>21)</sup>

20) 총 159개의 선정복사에서 어순을 판별할 수 없는 목적어만 출현한 복사 48개와 V<sub>1</sub> O<sub>補</sub>V<sub>2</sub> 어순에서 O<sub>補</sub>가 초점이 되어 어순을 정할 수 없는 복사 3개는 제외하였다.

21) 제사대상은 나오지 않지만, ‘宜’제사를 거행할지 여부를 점치는 대정복사도 있다.

丙,宜羊

丙,芻宜 『花東304』

丙일에 (점친다), 양으로 宜제사를 지낼까요?

丙일에 (점친다), (양으로) 宜제사를 지내지말까요?

이 복사는 긍정문에서 동사 ‘宜’와 목적어 ‘羊’은 VO 어순인데, 부정문에서는 목적어를 생략하여 어순을 확인할 수 없다.

- (18) 癸卯卜, 覈貞, 翌甲辰酒大甲  
 癸卯卜, 覈貞, 翌甲辰勿酒大甲 『1443』  
 癸卯일에 점쳐 覈이 묻는다. 다음 甲辰일에 大甲에게 酒제사를 지낼  
 까요?  
 癸卯일에 점쳐 覈이 묻는다. 다음 甲辰일에 大甲에게 酒제사를 지내  
 지 말까요?

(18)은 ‘大甲’에게 ‘酒’제사를 지낼지를 묻고 있는데, 부정문에서도 긍정문  
 과 같이 동사와 목적어의 순서가 바뀌지 않고 모두 VO 어순이다.  
 다음은 전쟁과 관련된 복사이다.

- (19) 癸亥卜, {蜚}22) 其夕征雀  
 癸亥卜, {蜚} 弗夕征雀 『20393』  
 癸亥일에 점친다. {蜚}이 밤에 雀을 공격할까요?  
 {蜚}이 밤에 雀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20) 貞, 王比望乘  
 貞, 王勿比望乘 『32正』  
 묻는다. 王이 望乘과 함께할까요?  
 묻는다. 王이 望乘과 함께하지 말까요?  
 (21) 丁丑卜, 賓貞, 疋獲羌, 九月  
 貞, 疋不其獲羌. 『190正』  
 丁丑일에 점쳐 賓이 묻는다. 疋가 羌족을 잡을까요? 九月이다.  
 묻는다. 疋가 羌족을 잡지못할까요?  
 (22) 不雉衆, 王占曰: 引吉  
 其雉衆 『35345』  
 백성을 해치지 않을까요? 王이 판단내리길: 매우 길하다/ 백성들을  
 해칠까요?

(19)에 나오는 ‘雀’은 정인(貞人)으로 자주 등장하고 또 상(商)나라에 공납  
 도 자주하는 우호적인 방국이나 지역이라서 상왕이 ‘雀’지역의 안위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 복사는 {蜚}이 저녁에 ‘雀’을 공격할 것인가를 점치는 내용인

22) 갑골문에 해당하는 정확한 글자가 없는 경우, 편의상 자형이 유사한 글자로 표기하고  
 { }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데 서술어인 ‘夕征雀’이 초점이며 부정문에서도 이 순서는 바뀌지 않고 VO 어순이다. (20)는 王이 전쟁에 나가는데 ‘望乘’이란 인물과 함께 할 것인가를 묻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초점은 ‘比望乘’이라는 행위이며, 부정문에서도 긍정문과 마찬가지로 VO 어순이다. (21)은 전쟁에서 ‘疋’라는 사람이 강족(羌族) 포로를 잡을 수 있을지를 묻는 내용인데, ‘獲羌’이 초점이 되며, 동사와 목적어는 부정문에서도 긍정문과 마찬가지로 VO 어순이다. (22)에서 ‘衆’은 일반 백성을 나타내고, ‘雉’는 전쟁 복사에 자주 등장하는 ‘남을 해치다’는 의미의 동사이다. 여기에서 상왕(商王)의 관심은 누가 침입을 해서 백성들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므로 초점은 ‘雉衆’이다. 부정문으로 먼저 점복을 하고, 이어 긍정문으로 점복을 하였는데, 모두 VO 어순이다. 대정복사는 반드시 긍정과 부정의 순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대정복사처럼 부정의 질문이 먼저 오고 긍정의 질문이 뒤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商)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이므로,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 그 가운데 특히 강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물론 날씨는 농사 이외에도 제사나 전쟁 등의 행사를 치를 때도 영향이 있으므로, 복사 가운데 비가 오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인다.

(23) 貞,其遘[雨]

貞,不遘雨 『12571』

점친다. 비를 만날까요?

점친다. 비를 만나지 않을까요?

(24) 王其[省]田,不[遘]雨

其遘[雨] 『屯南3795』<sup>23)</sup>

王이 사냥터를 시찰하는데, 비를 만나지 않을까요?

비를 만날까요?

(25) 丁丑卜,{狩}貞, 王田,不遘雨

丁丑卜,{狩}貞, 其遘雨 『29084』

丁丑일에 점쳐 {狩}이 묻는다. 王이 사냥하는데 비를 만나지 않을까요?

23) 屯南은 『小屯南地甲骨』을 가리킨다.

- 까요?  
 丁丑일에 짐쳐 {狩}이 묻는다. 비를 만날까요?  
 (26) 丙午,貞,父丁歲,不遘雨  
 其遘雨 『32695』+『寧滬1.684』+『34423』  
 丙午일에 묻는다. 父丁에게 歲제사를 지내는데, 비를 만나지 않을까요?  
 비를 만날까요?  
 (32) 不遘大風  
 其遘大風 『屯南2257』  
 센바람을 만나지 않을까요?  
 센바람을 만날까요?  
 (33) 甲申卜,岳弗害禾  
 甲申卜,其害禾 『34229』  
 甲申일에 점친다. 岳이 벼농사를 해치지 않을까요?  
 甲申일에 점친다. 벼농사를 해칠까요?

(23)은 비를 만날지에 대한 궁금함을 점치고 있다. 초점이 ‘遘雨’인데 부정문에서도 VO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4)도 ‘遘雨’가 초점인데, 王이 사냥터를 시찰하게 되어 날씨를 점친 것으로 부정문과 긍정문 모두 VO 어순이다. (25)는 왕이 사냥을 하는데 비를 만날지를 묻는 내용으로 역시 ‘遘雨’가 초점이다. (26)은 제사를 지낼 때의 날씨를 묻는 내용이다. 초점은 역시 ‘遘雨’이며 부정문 긍정문 모두 VO 어순이다. 날씨와 관련해서는 비에 대한 점복이 가장 많지만, 이 밖에 바람 등 다른 내용에 대한 복사도 보인다. (27)은 큰 바람이 불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遘大風’이 초점이며, 부정문과 긍정문 모두 VO 어순이다. (28)은 벼농사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岳’이라는 자연신이 벼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주체로 출현하고 ‘害禾’가 초점이 되어 부정과 긍정의 형식으로 점복을 하고 있는데, 모두 VO 어순이다.

건강과 질병은 상대(商代) 사람들에게도 주요한 관심사이었다. 다음의 두 무리 대정복사는 그 가운데 눈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다.

(29) 戊戌卜,貞,丁未疾,目不喪明

其喪明 『21037』

戊戌일에 점쳐 묻는다. 丁未일에 병이 낫는데, 눈이 실명하지 않을까요?

실명할까요?

(30) 貞,王其疾目

貞,王弗疾目 『456正』

묻는다. 王이 눈에 병이 생길까요?

묻는다. 王이 눈에 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29)는 丁未일에 병이 나서 20여 일이 지나도 낫지 않자, 혹시 실명하지 않을까를 점복한 것인데, 부정문과 긍정문 모두 VO 어순이다. (30)의 ‘喪明’이 실명이라면 ‘疾目’은 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30)은 상왕의 안질에 대한 점복으로 ‘疾目’이 초점이며, 긍정문과 부정문 모두 VO 어순이다.

다음은 공납과 관련된 복사이다.

(31) 戊辰卜,雀以象

戊辰卜,雀不其以象 『8984』

戊辰일에 점친다. 雀이 코끼리를 바칠까요?

戊辰일에 점친다. 雀이 코끼리를 바치지 않을까요?

(32) 貞,晝來牛

弗其來牛 『9525正』

묻는다. 晝가 소를 바칠까요?

바치지 못할까요?

(31)은 앞에도 등장한 ‘雀’이란 지역에서 코끼리를 공납할 것인지를 점치는 내용으로 ‘以象’이 초점이다. (32)는 ‘晝’라는 지역에서 소를 공납할지를 점치는 내용으로 ‘來牛’가 초점이다. 이 복사들의 ‘以’와 ‘來’는 모두 기사각사(記事刻辭)에 자주 등장하는 공납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로, 두 무리 대정복사 모두 긍정문과 부정문이 VO 어순이다.

사냥은 평시에는 전쟁을 위한 훈련의 역할을 하므로, 상나라 사람들이 자주 펼쳤던 활동이다. 사냥의 대상으로 다양한 동물이 등장하고, 사냥의 방법

도 여러 가지가 보인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33) 王其射兕,亡{災}  
 弔射 『28391』  
 王이 외뿔소를 활로 쏘면 재앙이 없을까요?  
 활로 쏘지 말까요?
- (34) 丙戌卜,王,我其逐鹿獲.允獲十  
 丙戌卜,[王],不其獲鹿.一月 『10950』  
 丙戌일에 점쳐 왕이 (묻는다). 우리가 사슴을 쫓아서 잡을까요? 과연 열 마리를 잡았다.  
 丙戌일에 점쳐 왕이 (묻는다), 사슴을 잡지 못할까요?

(33)은 사냥 대상이 외뿔소이고 사냥 방법은 활로 쏘는 것이다. (34)는 사냥 대상이 사슴이고 사냥 방법은 몰아가서 잡는 ‘逐’이다. (33)은 ‘射兕’가 초점이고 (34)는 ‘獲鹿’이 초점이다. (34)는 앞뒤 구절에 번갈아 생략된 부분이 있다. 첫째 구절에는 동사 ‘獲’ 뒤에 목적어인 ‘鹿’이 생략되었고, 점복 시행 후의 최종 결과를 알려주는 驗辭가 기록되어 있다. 이때 사냥의 결과로 사슴을 열 마리 잡은 것이다. 둘째 구절에서는 부정의 형식으로 물었는데 앞에 출현한 첫째 동사는 생략되고, 앞에서 생략된 목적어가 출현했으며, 점친 시기가 기록되었다. 이 복사들에서도 동사와 목적어는 모두 VO 어순이다.

상왕의 관심이 건축과 관리의 업무 능력 등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도 있다.

- (35) 貞,王作邑,帝若.八月  
 貞[王]勿作邑,帝若 『14201』  
 점친다. 王이邑을 세우면, 帝가 순조롭게 해줄까요? 八月이다.  
 점친다. 王이邑을 세우지 않으면, 帝가 순조롭게 해줄까요?
- (36) 乙巳卜,覈貞,鬲風化甗王事  
 乙巳卜,覈貞,鬲風化弗其甗王事 『5440正』  
 乙巳일에 점쳐 覈이 묻는다. 鬲風化가 王이 시킨 업무를 수행할까요?  
 乙巳일에 점쳐 覈이 묻는다. 鬲風化가 王이 시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까요?

(35)는 부락을 세우는 일이 잘 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帝’는 상대에 출현하는 여러 자연신과 조상신 가운데 가장 권위를 갖춘 至上神으로, 상나라 사람들은 ‘帝’가 길흉화복을 좌우한다고 믿고 있다. 위의 복사는 ‘作畝’이 초점이며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모두 VO 어순이다. (36)은 ‘甬風化’라는 인물이 王이 하달한 업무를 잘 할 수 있을지를 점복하고 있는데, ‘甬王事’가 초점이며 긍정문과 부정문 모두 VO 어순이다.

위에서 보이듯이 선정복사가 주로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점복하는 것에 비해, 대정복사는 제사 뿐만 아니라 거의 일상의 모든 일을 점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정복사가 명사 목적어에 초점이 오는 것과 달리, 대정복사는 긍정문과 부정문이 대비되어 술어 전체에 초점이 오며 서로 대비되는 긍정문과 부정문이 모두 VO 어순이라는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 ② OV어순

앞에서 살펴본 예에서 대정복사는 대비되는 긍정문과 부정문이 모두 VO 어순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OV 어순의 복사도 간혹 보인다.

(37) 貞,百牛至

貞,百牛毋其至 『9214』

묻는다. 백마리의 소를 보낼까요?

묻는다. 백마리의 소를 보내지 않을까요?

(37)은 공납과 관련된 내용을 점복하는 것인데, 긍정문과 부정문이 모두 OV 어순이다. 하지만 OV 어순이 대정복사의 긍정문과 부정문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예는 이 복사가 유일하고, 나머지 복사는 긍정문과 부정문의 어순이 서로 다르다.

- (38) 貞,其御{鹿}  
 貞,{鹿}不其御 『795正』  
 묻는다. {鹿}에게 禦제사를 지낼까요?  
 묻는다. {鹿}에게 禦제사를 지내지 말까요?
- (39) 貞,御叶  
 叶不御 『4530正』  
 묻는다. 叶에게 禦제사를 지낼까요?  
 叶에게 禦제사를 지내지 말까요?
- (40) 丙寅,降千  
 丙寅,不千降 『21960』  
 丙寅일에 묻는다. 千을 내릴까요?  
 丙寅일에 묻는다. 千을 내리지 않을까요?

(38)~(40)은 모두 긍정문은 VO 어순이고, 부정문은 OV 어순이다. 그런데 (38)과 (39)는 목적어가 부정사 앞에 있고, (40)는 목적어가 부정사 뒤에 있는 차이가 있다.

다음의 예는 긍정문은 OV 어순이고, 부정문은 VO 어순이다.

- (41) 呼{亞}豕獲  
 {亞}不其獲豕 『6949正』  
 {亞}를 시켜 돼지를 잡게 할까요?  
 {亞}가 돼지를 잡게하지 말까요?

(41)의 첫째 구절은 겸어문(兼語文) 구조인데, 초점은 ‘豕를 獲하는 것’으로 대정복사에서 대명사 목적어의 형식과도 다르게 긍정문에서는 ‘豕獲’으로 OV 어순이다. 반면 부정문에서는 첫째 동사는 생략되고, ‘獲豕’로 VO 어순이다.

겸어문에서 겸어 뒤의 동사와 목적어가 OV 어순인 경우가 종종 보인다. 동사 ‘執’과 목적어 ‘僕’이 출현하는 아래의 예문을 보자.

- (42) 貞{菴}執僕  
 貞{菴}弗其執僕 『575』  
 묻는다. {菴}이 僕을 잡을까요?

묻는다. {芑}이 僕을 잡지 못할까요?

(43) 貞呼{癘}僕執 『572』

묻는다. {癘}을 시켜서 僕을 잡을까요?

(44) 癸丑卜,王呼疋僕執 『576』

癸丑일에 점친다. 王이 疋를 시켜 僕을 잡을까요?

(42)는 대정복사인데 초점이 ‘執僕’이며, 긍정문과 부정문이 모두 VO 어순이다. (43)과 (44)는 ‘呼+ 겹어+O+V’ 구조이다. 여기에서 겹어 뒤는 모두 ‘僕執’으로 OV 어순이다. (43), (44)와 마찬가지로 (41)의 긍정문도 ‘呼+ 겹어+O+V’ 구조이다.

위의 예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수의 특별한 복사를 제외하고 대정복사는 긍정문이나 부정문 모두 VO 어순이다. 본고의 조사에 의하면 대정복사에서 VO 어순이 긍정문에서는 96.6%, 부정문에서는 93.1%를 차지하여, VO 어순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대정복사 속 VO 어순과 OV 어순의 출현횟수를 비교한 자료이다.

『대정복사의 문형별 명사 목적어 어순』

어순	VO	OV
긍정문	56	2
부정문	54	4
합계	110	6

이상으로 살펴보았듯이 점복의 형식이 선정이든 대정이든 관계없이 명사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VO 어순이다. 그렇지만 질문의 초점이 술어 전체에 오는 대정복사가 거의 모두 VO 어순임에 비해, 초점이 명사 목적어에 오는 선정복사에서는 OV 어순을 취하는 예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인다.

## 4. 갑골문 대명사 목적어의 어순

다음으로 대명사가 목적어인 문장의 어순을 살펴보자. 갑골문의 문례(文例)상 목적어가 대명사인 선정복사는 없고 대정복사만 보인다. 선진시기 중국어에서 대명사 목적어는 긍정문에서는 대부분 VO 어순이고 부정문에서는 OV 어순이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정문과 긍정문으로 나누어 어순을 살펴 보겠다.

### 1) 부정문

齊航福(2015:40-48)에 의하면 대명사 목적어는 긍정문에서는 모두 VO 어순이며, 부정문 속에서는 OV 어순이 93개이고, VO 어순이 20개이다. 우선 부정문 속에 출현하는 대명사 목적어를 보자.

#### ① OV 어순

우선 목적어가 두 개인 복사의 예를 보자.

- (45) 己未卜, 覈貞, 缶其{蓄}我旅  
 己未卜, 覈貞, 缶不我{蓄}旅 『1027正』  
 己未일에 점쳐 覈이 묻는다. 缶가 나에게 旅를 {蓄}할까요?  
 己未일에 점쳐 覈이 묻는다. 缶가 나에게 旅를 {蓄}하지 않을까요?
- (46) [貞], 上[子]受我祐  
 貞, 上子不我其受祐 『14259』  
 묻는다. 上子가 우리에게 도움을 내리실까요?  
 묻는다. 上子가 우리에게 도움을 내리시지 않을까요?
- (47) 貞, 馘不我其來白[馬] 『9176正』<sup>24)</sup>

24) 이 복사는 斷片인 관계로 긍정문이 보이지 않지만, 문례의 비교를 통하여 대정복사임을 알 수 있다.

묻는다. 敵이 우리에게 흰말을 보내지 않을까요?

(45), (46)은 모두 부정사 ‘不’의 뒤에 간접목적어 ‘我’가 오고, 이어서 어기를 나타내는 ‘其’가 선택적으로 출현한 다음에 동사가 오고 마지막에 직접목적어가 오는 ‘不+我+(其)+V+O’ 순서이다. 긍정문의 일반적 어순인 ‘V+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순서와 다르게, 부정문에서는 간접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오는 OV 어순이다.

다음은 하나의 목적어가 오는 복사이다.

(48) 河咎我

不我咎 『2415正』

河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까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요?

(49) 真,方不我征 『6680』<sup>25)</sup>

묻는다. 方이 우리를 정벌하지 않을까요?

(50) 辛巳…不我又 『21842』

辛巳일에…我를 돕지 않을까요?

(48)은 화복(禍福)을 주재하는 자연신 ‘河’가 긍정문에서 주어로 나오지만, 부정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며 목적어 ‘我’가 동사 앞에 위치한 ‘不+我+V’ 구조로 OV 어순이다. (49)는 주어인 ‘方’과 동사 ‘征’ 그리고 목적어 ‘我’가 모두 출현하며, 목적어인 ‘我’가 동사 앞에 위치한 OV 어순이다. (50)도 (48)과 마찬가지로 목적어 ‘我’가 동사 앞에 위치한 ‘不+我+V’ 구조이다.

이상의 예문들은 모두 목적어로는 대명사 ‘我’가, 부정사로는 ‘不’이 쓰였다. 이 두 가지 대명사와 부정사가 복사에 가장 많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이 다른 대명사가 쓰인 예도 보인다.

25) 이 복사도 斷片이라 긍정문을 확인할 수 없지만, 다른 복사에 ‘…[方]征我… 『6679』’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정복사의 부정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후의 예문들은 모두 이런 문례의 비교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 (51) 乙酉卜,王貞,師不余其見 『20391』  
 乙酉일에 점쳐 王이 묻는다. 師가 나에게 바치지 않을까?  
 (52) 戊戌卜,覈貞,王曰侯虎:“毋歸”  
 戊戌卜,覈貞,王曰侯虎:“往!余不爾其合,以乃史歸” 『3297正』  
 戊戌일에 점쳐 覈이 묻는다. 王이 虎侯에게 말하길: “돌아가지마  
 라” 할까요?  
 戊戌일에 점쳐 覈이 묻는다. 王이 虎侯에게 말하길: “가거라! 나는  
 너와 회합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 史를 데리고 돌아가라”라 할까요?

(51)은 대명사 ‘余’가 ‘바치다’는 의미로 쓰인 동사 ‘見’의 목적어로 쓰였는데 동사 앞에 위치한다. (52)는 대명사 ‘爾’가 목적어인데 동사 앞에 위치한다.<sup>26)</sup> 두 복사 모두 부정사는 ‘不’이 쓰였다. <sup>27)</sup>

## ② VO 어순

다음의 예문은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뒤에 나오는 것들이다.<sup>28)</sup>齊航福(2015:45-48)는 부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는 것이 我が 7회, 朕이 1회, 余가 2회, 之가 9회, 茲가 1회 보인다고 하였다.<sup>29)</sup> 그가 제시한 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목적어가 하나 있는 복사이다.

26) 대명사 ‘乃’는 관형어로 쓰였다.

27) 다음 복사는 命辭가 아니고 占辭에 해당하는데 판단을 내리는 내용상 ‘害余’가 점복의 초점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복사도 OV 어순이며 부정사는 ‘勿’이 쓰였다.

王占曰:“吉,勿余害” 『13750反』

王이 판단내려 말하길:“吉하다.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28) 일부 갑골문 연구서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의 ‘亡’을 부정사로 보고, 대명사 목적어 후치의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본고는 ‘亡’을 ‘有’와 짝을 이루는 존재동사로 보고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이 복사에서 동사 ‘亡’의 목적어는 ‘害我’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貞,我家舊{老}臣亡害我 『3522正』

(ii) 貞,多祖亡害我 『2095』

29) 사실상 齊航福는 ‘亡’을 부정 동사로 보았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53) …弗左我 『16432』  
 …우리를 돕지 않을까요?

(53)은 부정사 ‘弗’ 이 쓰였는데, 대명사 목적어 ‘我’가 동사 ‘左’의 뒤에 위치한 VO 어순이다.<sup>30)</sup>

다음은 겸어문(兼語文)구조 복사이다.

- (54) 貞,[王有]夢, 呼余禦(翌)  
 貞,王有夢,不佳呼余禦(翌) 『376正』<sup>31)</sup>  
 묻는다. 王이 꿈을 꾸었는데, 나한테 {翌}에게 禦제사를 지내라는 것일까요?  
 묻는다. 王이 꿈을 꾸었는데, 나한테 {翌}에게 禦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것일까요?

(54)는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구성된 대정복사로 동사 ‘呼’의 목적어인 대명사 ‘余’를 포함하는 절은 긍정문과 마찬가지로 VO 어순이다.<sup>32)</sup>

다음은 지시대명사 ‘之’가 동사 뒤에 출현하는 예문이다. 齊航福(2015:46)은 이런 예가 모두 9개이며, ‘之’는 이렇게 동사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 어순이라 보았다.

- (55) 貞,曰之  
 貞,勿曰之 『11461』  
 묻는다. 이것을 말할까요?

30) 齊航福(2015:45)가 부정문 속 대명사 후치의 예로든 貞:茲雨不佳咎我 『12889』는 사실 목적어 후치가 아니라, 咎에서 첫 문장이 끝나고 我是 다음 문장의 시작이다. 이는 :茲雨佳咎 『12884』, 貞:不雨, 不佳咎 『12887』, 茲雨不佳咎 『12890』, 貞:雨不佳咎 『12891』를 보면 알 수 있다.

31) 楊逢彬(2003:198)은 {翌}을 재앙을 나타내는 禍로 보았다.

32) 이 구절에 대하여 齊航福은 ‘余’가 商王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하지만 ‘王占曰:祖乙弗若朕, 不其… 『13604反』’의 복사를 같은 관 앞부분의 ‘貞:祖乙若王不’의 구절과 비교해보면 朕이 왕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복사에서 余도 상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묻는다. 이것을 말하지 말까요?

(56) 辛巳卜,賓貞:其曰之

貞:不曰之 『18860正』

辛巳일에 점쳐 賓이 묻는다. 이것을 말할까요?

이것을 말하지 말까요?

(55), (56)에 보이듯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之’는 모두 VO 어순이다.<sup>33)</sup> 후대의 문헌에서도 ‘之’는 거의 대부분 VO 어순으로 출현한다.<sup>34)</sup>

마지막으로 지시대명사 ‘茲’가 있는데, 다음의 예문을 보자

(57) 貞,曰師毋在茲延 『5808』

점친다. 군대가 여기에서 계속하지 말라고 할까요?

齊航福(2015:48)는 (57)에서 ‘在茲’의 ‘在’는 전치사이며, 부정사 ‘毋’와 전치사구 ‘在茲’가 모두 동사 ‘延’을 수식하는 구조로 보았다. 이 견해대로라면 ‘茲’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전치사 뒤에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在’가 전치사이든 동사이든 목적어 ‘茲’는 뒤에 위치한 것인데, 사실 후대 문헌에서도 ‘茲’는 다른 대명사들과는 달리 동사 뒤에 출현한다.<sup>35)</sup>

33) ‘之’가 OV 어순으로 출현하는 것은 모두 예외 없이 초점 표지를 수반한 경우들이다. 齊航福가 제시한 예문은 아래의 복사들인데, 첫째 대정복사에서는 긍정문과 부정문에 모두 초점표지 ‘佳’가 목적어 앞에 있고, 둘째 복사에는 목적어 ‘之’ 앞에 초점표지 ‘佳’가 있다.

(i) 壬辰卜,爭貞,佳鬼施

貞,不佳之施 『1114正』

壬辰일에 점쳐 爭이 묻는다. 鬼에게 施할까요?

묻는다. 그것에게 施하지 말까요?

(ii) 辛卯卜,賓貞,沚馘啓巴,王勿佳之比 『6461正』

沚馘이 巴방을 이끄는데, 王이 그와 연합하지 말까요?

참고로 위 예문의 ‘之’를 張玉金(2001:28-32)은 3인칭 대명사로 보고 있지만, 본고는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의 발생학적 관계와 선진시기 중국어 속의 대명사 발전상황을 고려한 楊逢彬(2003:221-222)의 견해를 따라 지시대명사로 본다.

34) 하지만 (55)와 (56)의 VO 어순이 ‘之’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동사 ‘曰’이 후대의 ‘云’처럼 타동성이 약해서인지는 더 상세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2) 긍정문

일반적으로 갑골문에서 긍정문일 경우 대명사 목적어는 모두 동사 뒤에 위치하여 VO 어순이며, OV 어순은 西周의 金文이나 후대 문헌에서야 비로소 나타난다고 알려졌다.<sup>36)</sup> 그러나 갑골문의 긍정문에도 다음과 같이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는 예가 보인다.

- (58) …今夕…亡左…余受有祐? 『36360』  
 …오늘 밤…도움이 없으…내게 도움을 줄까요?
- (59) …自上下于覲示,余受有祐.不蔑裁[禍].告于茲大邑商,亡害在禍 『36511』  
 …上下(자연신)부터 覲示(조상신)까지 제게 도움을 주실까요? 길하여 재앙이 없다. 이 대읍 상에서 告제사를 올리면 나쁨 조짐을 해치는 것이 없을까?
- (60) 乙酉王…丁酉余步從…受余祐. 不…亡害在禍 『36359』  
 乙酉일에 王이…丁酉일에 내가 …를 거쳐 걸어서…나에게 도움을 줄까요? …아니면 나쁨 조짐을 해치는 것이 없을까?
- (61) …蔑人方. 上下于覲示,受余祐…于大邑商. 亡害在禍 『36507』  
 …人方을 공격하는데, 上下부터 覲示까지 제게 도움을 주실까요?… 대읍 상에서 … 나쁨 조짐을 해치는 것이 없을까?

(58)과 (59)는 간접목적어인 대명사 ‘余’가 동사 ‘受’ 앞에 있는 OV 어순이고, (60)과 (61)은 간접목적어 ‘余’가 동사 뒤에 있는 VO 어순이다. 이 예문들에서 ‘余’가 王 자신을 나타내는 일인칭대명사로 쓰였다는 것은 ‘庚子卜,王貞: 余亡害 『5002』’ 복사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 복사는 점복의 주체가 王이므로 자신을 나타내는 주어로 대명사 ‘余’를 사용한 것이다. (58)~(61)에서 동사 ‘受’의 주어는 일인칭 대명사 ‘余’에게 ‘祐’를 내려주는 주체로서 앞에 출현하는 조상신과 자연신들이다.

35) 이 경우도 ‘之’와 마찬가지로 대명사 ‘茲’의 특성 때문인지, 동사 ‘在’의 타동성과 관련 된 것인지는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36) 齊航福(2015:57)의 注③참조.

위에서 대명사 목적어의 어순을 부정문과 긍정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긍정문과 부정문에 나타나는 OV 어순과 VO 어순의 출현 빈도를 보자.

아래의 표는 『殷墟甲骨刻辭類纂』의 ‘我’와 ‘余’조항에서 조사한 대명사 목적어의 어순별 출현 횟수이다.

『대명사 목적어의 문형별 어순』

	VO	OV
긍정문	77	3
부정문	3	44

위의 표에 보이듯,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긍정문에서는 VO 어순이 많이 보이고, 부정문에서는 OV 어순이 많이 사용되어 선진시기와 같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갑골문에는 긍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어가 일률적으로 VO 어순이라고 했지만, 본고의 고찰 결과 소량이지만 OV 어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갑골문 목적어의 품사와 문형에 따른 어순 양상

이상으로 살펴본 갑골문 목적어의 품사와 문형에 따른 어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갑골문 목적어의 어순』

O의 품사	복사 종류	문형	어순	출현횟수	문형내 점유율
명사	선정	긍정	VO	85	78.7
			OV	23	21.3
	대정	긍정	VO	56	96.6
			OV	2	3.4
		부정	VO	54	93.1
			OV	4	6.9
대명사	대정	긍정	VO	77	96.25
			OV	3	3.75
		부정	VO	3	6.4
			OV	44	93.6

위의 표를 보면 품사와 문형에 관계 없이 갑골문에는 VO 어순과 OV 어순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명사 목적어와 대명사 목적어가 부정문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명사 목적어와 대명사 목적어가 긍정문에서는 대부분 VO 어순이지만, 부정문에서는 명사 목적어는 VO 어순이, 대명사 목적어는 OV 어순이 강세라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기존 연구자들이 부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어는 OV 어순이고, 긍정문에서는 대부분 VO 어순이라는 견해와 어긋나지 않는다.<sup>37)</sup> 그러나 초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명사 목적어의 경우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VO 어순이 이미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복사 종류별로 OV 어순이 나타나는 비율을 보면, 선정복사 긍정문에서 21.3%를 차지하여, 대정복사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결과는 목적어 명사에 초점이 있는 선정복사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sup>38)</sup> 일

37) 楊伯峻、何樂士(2001:785-787)는 부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어는 ‘之’와 같은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동사 앞에 온다고 하였다. 긍정문의 경우 楊伯峻、何樂士(2001:798)는 대명사 ‘是’만 동사 앞에 오고, 다른 대명사는 가끔 동사 앞에 온다고 하였다.

38) 이에 대해 石毓智、徐杰(2001:456)는 어기를 강조를 위해 목적어를 전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OV 어순과 VO 어순이 혼재되어있는 현상은 OV 어순에서 VO 어순으로

반적으로 OV 언어는 O에 초점이 있는데, 명사 목적어에 초점이 있는 선정복사가 OV 어순을 취하는 것은 초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sup>39)</sup> 반면에 대정복사의 경우 초점이 명사 목적어가 아닌 술어 전체에 오는데, 이런 초점구조에서 먼저 VO로 어순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명사 목적어의 어순을 보자. 앞에 언급한대로 대명사가 목적어인 선정복사는 없으므로, 대정복사를 중심으로 대명사 목적어 어순을 살펴 보면, 술어 전체에 초점이 오는 대정복사에서 긍정문과 부정문 모두 VO와 OV의 어순이 보이지만, 부정문에서는 OV 어순의 비율이 높고, 긍정문에서는 VO 어순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sup>40)</sup> 이는 대명사가 목적어인 문장은 긍정문에서 먼저 VO 어순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보여준다.

## 6. 나오는 말

이상으로 갑골문에 보이는 목적어의 어순을 명사 목적어와 대명사 목적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선진시기 문헌에서 명사 목적어는 동사와의 위치 관계에 있어서 이미 VO 어순이 완성되었지만, 갑골문에서는 목적어에 초점이 있는 경우에 여전히 OV 어순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이는 상대(商代) 갑골문에서 어떤 과도기 과정을 거쳐서 선진시기에 명사 목적어의 VO 어순이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선진시기 문헌에서 대명사 목적어는 긍정문에서는 대부분 VO 어순이고, 부정문에서는 VO와 OV 어순이 모

변화하는 과도기에 보인다는 범언어적인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강조를 위해 목적어를 전치한다는 것은 무표적인 어순이 VO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9) 徐杰、李英哲(1993:89)는 의문대명사는 모두 초점 표지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문장의 강세 초점이 된다고 하였는데, 의문대명사가 목적어인 문장이 가장 늦게까지 OV 어순을 유지한 것도 초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40) 가장 많이 출현하는 '我'를 보면, OV 어순이 부정문에서 93.3%를 차지한다.

두 보이지만, 갑골문은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모두 VO와 OV 어순이 보인다. 이러한 갑골문 목적어의 어순을 이후의 목적어 어순 변화 과정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서주 시기 이후 목적어의 품사와 문형에 따른 시기별 어순에 대한 백은희(2019:153)의 표를 참고하고,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수정을 가해 갑골문에 보이는 상대(商代) 목적어의 어순을 추가한 것이다.<sup>41)</sup>

『목적어의 품사, 문형에 따른 시기별 어순』

목적어의 품사		문형	商	西周 ~ 春秋	戰國時期	東漢	唐五代
명사		긍정	OV/ VO	VO	VO	VO	VO
		부정					
대명사	인칭/ 지시 대명사	긍정	VO/ OV	VO/ OV	VO/ OV	VO	VO
		부정	VO/ OV	VO/ OV			
	의문대명사	의문문	?	OV	OV	OV	

위의 표를 보면 갑골문에는 이후 시기에 비해 OV 어순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어의 어순이 OV에서 VO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여 주며, 범언어적 변화의 보편적 경향에 부합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서주—춘추 시기에는 목적어가 명사인 긍정문에서 OV 어순이 보이지만 갑골문에는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갑골문에 없는 OV 어순이 왜 후대에 갑자기 출현한 것인지를

41) 갑골문에는 문례상 의문대명사가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칸에 ‘?’로 표시하였다. 표 안에서 VO와 OV 중에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은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나타낸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갑골문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인 긍정문에도 OV 어순이 존재하여 갑골문부터 목적어 어순의 변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갑골문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인 긍정문에 공존하던 VO 어순과 OV 어순이 후대에 점차 VO 어순으로 수렴한 것이다. 갑골문에서 명사 목적어가 대명사 목적어보다 일찍 VO 어순으로 변화한 것 또한 범언어적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 술어 전체에 초점이 있는 대정복사보다 목적어에만 초점이 있는 선정복사에 OV 어순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데, 이것은 어순과 초점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갑골문에 보이는 이런 양상은 중국어 목적어 어순의 통시적 변화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으며, 언어 보편적 원칙에도 부합한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西周—春秋 시기의 대명사 목적어 어순에 대한 분석이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나뉘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갑골문과 후대의 언어 양상과 상세한 비교를 하지 못했다. 향후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진행되어 목적어 어순의 통시적 변화의 면모가 완벽히 파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郭沫若主編,『甲骨文合集』,北京:中華書局,1978-82.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小屯南地甲骨』,北京:中華書局,1980.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殷墟花園莊東地甲骨』,昆明:雲南人民出版社,2012.
- 胡厚宣主編,『甲骨文合集釋文』,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9.
- 姚孝遂、肖丁主編,『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北京:中華書局,1988.
- 姚孝遂、肖丁主編,『殷墟甲骨刻辭類纂』,北京:中華書局,1989.
- 徐中舒主編,『甲骨文字典』,成都:四川辭書出版社,1988.
- 于省吾主編,『甲骨文字詁林』,北京:中華書局,1996.
- 落合淳思,『甲骨文字辭典』,京都:朋友書店,2016.
- 馬建忠,『馬氏文通』,北京:商務印書館 1983(1898).
- 管燮初,『殷墟甲骨刻辭的語法研究』,北京:中國科學院,1953.
- 陳夢家,『殷墟卜辭綜述』,北京:科學出版社,1956.
- 王力,『漢語史稿』,北京:中華書局,2004(1957).
- 沈培,『殷墟甲骨卜辭語序研究』,臺北:文津出版社,1992.
- 楊伯峻、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北京:語文出版社,2001.
- 張玉金,『甲骨文語法學』,上海:學林出版社,2001.
- 石毓智、李訥,『漢語語法化的歷程—形態句法發展的動因和機制』,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4(2001).
- 楊逢彬,『殷墟甲骨刻辭詞類研究』,廣州:花城出版社,2003.
- 齊航福,『殷墟甲骨文賓語語序研究』,上海:中西書局,2015.
- 周光午,「先秦否定句代詞賓語位置問題」,『語法論集』第三集,北京:商務印書館,1959.
- Greenberg,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On Language』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 Li & Thompson著 完權譯, 「從SVO到SOV語序變化的解釋」, 『境外漢語歷史語法研究文選』, 上海教育出版社, 2013(1974).
- 蘇寶榮, 「古漢語特殊詞序與原始思維心態」, 『古漢語研究』 제3권, 湖南師範大學, 1990.
- 徐杰、李英哲, 「焦點和兩個非線性語法範疇: “否定”“疑問」, 『中國語文』 제2권, 中國社會科學院, 1993.
- 張東寅, 「賓語前置溯源」, 『煙台大學學報』 제2권, 煙台大學, 1994.
- Kiparsky, 「The Shift to Head-Initial VP in Germanic」, 『Comparative Germanic Syntax』 Dordrecht: Kluwer, 1996.
- 陳文運、劉嬰連, 「賓語前置再論——紀念《馬氏文通》出版一百周年」, 『濟南大學學報』 제4권, 濟南大學, 1998.
- 李禾范, 「賓語前置芻議」, 『南京師範大學學報』 제5권, 南京師範大學, 2000.
- 歐陽偉, 「賓語位置變異初探」, 『喀什師範學院學報』 제2권, 喀什師範學院, 2001.
- 石毓智、徐杰, 「漢語史上疑問形式的類型學轉變及其機制—焦點標記‘是’的產生及其影響」, 『中國語文』 제5권, 中國社會科學院, 2001.
- 唐鈺明, 「甲骨文“唯賓動”式及其蛻變」, 『著名中年語言學家自選集-唐鈺明卷』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 傅京起、徐丹, 「SVO語言裏的賓語前置」, 『民族語文』 제3권, 中國社會科學院, 2009.
- 張立飛, 「論頻率對語言結構的建構作用」,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제6권, 解放軍外國語學院, 2010.
- 柳東春, 「甲骨文所見漢語語序類型變化痕迹」, 『國際中國學研究』 제14권, 韓國中國學會, 2011.
- 劉青, 「從甲骨卜辭語序看商朝語言與其他語族古代語言間關係」, 『語言學研究』 제1권, 昆明學院, 2011.
- 郭錫良, 「漢語史的分期問題」, 『語文研究』 제4권, 山西省社會科學院, 2013.
- 鄧統湘, 「《花園莊東地甲骨》介詞結構位置的異序竝存分析」, 『語言研究』 제3권, 華中科技大學, 2014.
- 范茹, 「古代漢語賓語前置句簡述」, 『語言文學研究』 제15권, 黑龍江教育出版社,

2015.

백은희, 「정보구조 관점에서 본 선진시기 중국어 논항구조의 어순」, 『언어와 정보 사회』 제36호, 서강대학교, 2019.

劉春娟, 「甲骨文對貞卜辭的語用研究」, 西南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黃勁偉, 「甲骨刻辭數量表達式分類、斷代整理與研究」, 西南大學 석사학위논문, 2013.

鍾紅丹, 「甲骨卜辭焦點表現手段研究」, 西南大學 석사학위논문, 2017.

李海燕, 「先秦漢語常見賓語前置研究」, 鄭州大學 석사학위논문, 2019.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order of words of the object in the Oracle Inscriptions

Ryu, Dong Choon

Currently, the basic word order of verbs and objects in Chinese is VO word order, but there seems to be a lot of OV word order in pre-Qin Chinese. There are not many prior studies on the process of synchronic change from OV to VO in Chinese after the pre-Qin period, but there are not many in-depth studies on the pattern of OV or VO in the Oracle Inscription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order of Chinese verbs and objects in the earliest period for the Oracle Inscriptions by dividing them according to the sentence type and word class.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re are more OV word orders in the Oracle Inscriptions than in the subsequent period,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language change, given the trend of changing the word order of Chinese from OV to VO. In addition, the OV word order evidence of the pronoun object in the positive sentence found in this paper solves why the OV word order, which was not in the Oracle Inscriptions, appears in future generations, which could not be explained according to the previous opinion. In other words, the VO word order and the OV word order, which coexisted in the affirmative text of the Oracle Inscriptions, gradually converged in the latter generation in VO word order, proving that the word order change progressed step by step. The change in noun objects in VO word order earlier than pronoun objects in the Oracle Inscriptions is also consistent with the pan-verbal trend. Finally, if the object is a noun, there are relatively more OV words in the Selection Inscription that focus only on the object than on the Symmetry Inscription that focus on the entire predicate, which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d order and focus. This aspect shown in the Oracle Inscriptions does not violate the trend of synchronic changes in the Chinese object word order, and is consistent with the universal principles of

language.

**Key words** : Oracle Inscriptions, Symmetry Inscription, Selection Inscription, OV, VO, Word order

투 고 일 : 2022. 1. 10. / 심 사 일 : 2022. 1. 15. ~ 2022. 2. 15. / 게재확정일 : 2022. 2. 20.